

意識改革에 있어서 女性의 役割

金 良 順

〈目 次〉

- | | |
|--------------|-------------|
| I. 序 論 | 2. 社会的 役割 |
| II. 意識改革의 意義 | IV. 結論 및 提言 |
| III. 女性의 役割 | 参考文献 |
| 1. 家庭的 役割 | |

I . 序 論

現代社會에서 女性은 과거 어느시대보다 多樣한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女性들의 意識構造는 과거에 執着하고 있으며 變化하는 社會에 不適應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役割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女性들은 스스로 자신의 意識構造를 바꾸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것이다.

家庭이 지속되는한 자녀를 出産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그들을 養育하는 근본적인 女性役割은 變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役割을 이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變化되어가는것 뿐이다.

과거 大家族制度안에서 女性은 자신이 원하던 원치않던 結婚에서부터 시작하여 可姓期間동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과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시는 일을 一生課業으로 삼고 살아왔다. 또한 이와같은 家族制度안에서 生活樣式은 女性들을 하루종일 家事勞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家族構造와 機能(Family Structure & Function) 및 家庭生活樣式 자체가 變化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女性役割도 자연히 새로운 變化를 맞게되었다. 社會의 都市化 및 工業化에 따라 가족은 核家族(Nuclear Family)으로 변화되고 가정의 諸般機能들도 사회전체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女性들의 活動領域 또한 가정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女性은 한 가정의 주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면서 多樣한 형태의 사회참여를 하게되었다. 오늘날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의 능력만으로는 그 社會發展 및 開發을 이룰 수 없으므로 자연히 여성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이와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正治, 經濟, 社會的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偏見과 차별대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偏見을 是正하고 한 人間으로서 女性의 地位를 되찾기 위하여, 또한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많은 子正的 意識들을 改革하기위하여 모든 여성들은 안일한 思考方式과 삶의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좋은 아내로서,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이 女性一生의 最大目的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社會의 한 構成員으로서 그 社會發展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人生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主體로서 여성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社會發展과 새로운 秩序를 위한 意識改革에서 女性들의 役割을, 家庭的役割 및 社會的役割의 측면에서 살펴보므로서, 女性들 스스로의 認識을 높여 女性主體性 (gender - Identity)을 되찾도록하며, 또한 社會는 여성에 대한 偏見과 誤解에서 벗어나 女性들의 必要와 要求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므로서, 그들의 능력을 社會開發을 위하여 活用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하려는데 本 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意識改革의 意義

意識(Consciousness)은 心理學的用語로 쓰일때, 自己自身の 精神將態를 直觀함을 뜻한다. 즉 事物을 깨닫는 마음작용, 곧 理智와 感情, 意志의 일체 精神作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意識을 잃었다”는 상태는 이런 直觀을 잃고 自己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狀態에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意識을 잃고 있거나, 意識이 마비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自覺하지 못하고 있다. 「韓國人の 意識」이란 제목의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무엇이 韓國人の 意識인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 社會에는 오랫동안 발전을 阻害하고, 人間과 人間사이를 갈라놓고, 개개인의 成長과 成熟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不正的 思考方式, 不正的 意識構造가 잠재하고 있다. 무사안일의식, 권위의식, 무질서의식, 사대의식, 부패의식 등등 명칭도 다양한 의식들이 잠재하고 있다. 개개인이 갖고있는 이와같은 의식구조는 전체 국민의 의식구조를 부정적 상태로 이끌게되며, 이는 곧 그 사회, 그 국가의 발전을 阻害하는 要素가 되는것이다.

人間の 意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습관화된 意識을 是正한다는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나 끊임없는 노력과 自覺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意識改革運動은 바로 우리자신이 갖고있는 不正的 意識을 肯定的 意識으로 轉換하므로서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意識改革은 어떠한 强制性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질수는 없으며 오로지 自身이 自覺하고 노력하는 自由意志에 의해서만 可能한 것이다. 나 한사람의 不正의意識이 곧 국민전체와 국가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女性들은 家庭과 社會라는 두 개의 領域에서 意識改革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役割을 적절히 이행하므로써 男性들과 협력하여 보다 나은 福祉國家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Ⅲ. 女性의 役割

1. 家庭的 役割

韓國은 傳統的으로 父系中心 血緣을 중요시하는 家父長的 家族制度를 실시하여왔다. 모든 개인은 家族을 위해 존재하였으며 특히 女性의 존재는 가족에 절대적으로 예측되어 있었다.

三從之道, 七去之惡, 不更二夫, 女必從夫 등과 같은 도덕을 남성들이 만들어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 이러한 貞節과 복종을 최고의 美德으로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스스로 자기희생의 굴레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運命처럼 받아들였다. (이동원, 1979). 여성은 일생을 한 가족과 그를 중심으로한 친족관계의 테두리안에서만 生活하였다.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 시댁의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더 중요시 되었다. 한 人間으로서의 自我(ego), 社會人으로서의 自我는 있을 수 없었으며 오직 家族人으로서의 존재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들을 낳아야만 비로서 시댁 家族員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안정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 스스로를 아들낳는 道具로 만들었다. 20世紀 후반인 지금도 많은 여성들 이와같은 의식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이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를 안고있다.

人口問題가 심각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여성들이 40~50代까지 자녀를 낳고 양육 하였으며 자녀양육을 마친뒤에오는 餘暇를 누릴수가 없었다.

아직도 농촌여성들은 대부분 과거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유교주의, 권위주의, 가족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한채 非合理的인 傳統에 좌우되고 있다. 民主主義思想을 기초로 平等的인 인간관계를 수립하기 보다는,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속에서 男尊女卑, 女必從夫를 스스로 용납하는 경향이 많다. 家族中心的인 가치관속에서 成長하여온 그들은 獨立된 개인으로 獨者的인 생활을 상상할 수 없고, 스스로를 가족집단에 매어놓으므로써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김주숙, 1979). 근래에는 농촌여성들의 역할도 점차 多樣化되었으므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이

행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그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많은 여성단체와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都市의 夫婦中心 核家族에서는 젊은세대들이 결혼과 더불어 부모님을 떠나 새 살림을 차리고 여자는 한 남자 - 과거에는 한 집(家)-와 결혼한다는 관념이 앞서며,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다. 또한 社會가 요구하는 가족계획에 따라 자녀를 둘정도 낳으면 보통 25才에 결혼한 여성들도 30才를 前後하여 斷産하게 된다. 현대 여성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간을 최저로 단축할 수 있으며, 출기전에 양육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녀들이 학교가는 시기가 되면 여성의 나이는 35才 정도이며 이때부터 여성의 餘暇期가 시작된다. 住宅構造와 생활양식은 점점 편리하고 機械化되어가므로 家事勞動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energy)는 절약된다. 의학의 발달로 여성의 壽命도 연장되고, 어머니 연령이 55才정도이면 마지막 자녀가 독립해 나가고, 父母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후에도 평균 10~15년의 세월이 남는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가장 바쁜시기는 결혼후 불과 10여년 정도이다. 그후에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꾸준히 계속되지만, 현대 남편들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부부사이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여성들은 35才를 넘으면서 사회생활에 바쁜 남편과, 학교생활에 바쁜 자녀들에게서 疎外感을 느끼고 매일 빈집을 지키는 하숙집 주인과 같은 역할을 되풀이 하게 된다(이효재, 1971).

사회학자 로스(Ross)는 바로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대 부인들은 막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반 機能喪失者가 된다(이동원, 1979).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時間, 자신이 배운 지식, 남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 모르고, 가족으로부터의 疎外感, 情緒의 欲求不滿을 잘못 발산시키므로 社會的物議를 일으키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 근로여성들은 過重한 노동과 차별임금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집안채의 값을 몸에 감고 다니는 여성이라든지, 서민들은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액수의 혼수감 마련을 하는 이들도 있다. 여성들의 허영과 사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문제가 된다. 날마다 올라가는 물가, 물질만능의 社會風潮는 여성들의 허영심에서 비롯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父母의 허영은 또한 자녀의 능력과 재질을 무시한채,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중한 공부와 기타 예능 렛슨(lesson)으로 자녀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그들 손안에서 조 절하려하나, 결국 자녀들에게는 불행한 인생을 안겨주게 된다.

이와같은 현상들은 자신의 내부가 비어있는데서 오는 副產物이다. 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自身の 意識을 스스로 깨우치는 일 뿐이다.

女性들은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주어진 時間과 능력, 또는 재물을 生産的인 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언제까지나 이것을 한탄하며 안일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資源의 큰 손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0여개의 여성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마다 개성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여 회원으로서 함께 일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은 40代 이후의 精神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35才 이전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이낙스 램, 1981). 家族으로부터의 疎外感, 無用感에서 벗어나 자신을 再 發見하고 自己의 精神健康을 관리할줄 아는 능력이 현대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女性은 혼자 힘으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혼자 힘으로 선다는것(to stand alone) 즉 「어른이 된다」는 말의 本質이다. 다른 사람에게 依存한다든가, 자기의 힘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과 競爭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옛날 여성은 依存과 競爭, 慣習과 女性尊重의 두 極端사이를 오가고 했을지 모른다. 이 두개의 極端은 均衡을 잃게한다. 이 어느쪽도 여성이 완전한 한 인간(Whole Person)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성은 자기의 진정한 中心을 혼자 힘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완전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Anne, M. Lindbergh, 1955).

女性은 스스로 內部的 힘을 길러야 한다. 他人과 協力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펄 . 벅(Pearl S. Buck)은 새 시대의 夫婦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아내의 중요한 책임은 모든 남성에게 그녀가 그들과 완전히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도 조금도 그들이 두려워 할것은 없으며, 오히려 그것만이 서로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 남편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한편 남편의 책임은 아내와 모든 여성에게 자유롭게 자기를 발휘하고 그녀들의 재능을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쓸수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이다.」

(주정일, 1981.)

女性이 家庭에서 어머니의 役割을 이행하는데도 意識改革은 필요하다. 많은 여성들은 母性愛(Mothering)를 아이를 낳으므로 本能的으로 발휘되는 것이고, 노력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니며 더구나 本能에만 맡겨서 되는일은 결코 아니다.

母性愛의 특징의 하나는 상대방을 나와 同一視 할정도로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의 自由를 인정하고, 그의 成長을 希求하고, 나로부터의 분리를 감당하는데 있다. 아무리 자신이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神의 피조물로서의 獨立性을 인정하고 그를 위한 내 보호의 손길을 펴는 것이다. 따라서 母性愛는 반드시 아이를 낳은 母性만이 발휘하는 특권을 가진것이 아니라 高度의 精神的 경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宗教的 精神과도 통하는 것이다(주정일, 1981).

물질만능의 시대에서도 어린이들이 참된것을 사랑할줄 아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성들은 진정한 母性愛를 발휘하여야 한다. 子女教育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를위해 계속 공부하는 자세를 지니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줄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家庭에서 여성의 役割을 현명하게 이행하는 길이 될것이다.

2. 社會的 役割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法律上 여성들에게, 正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남성들과 同等한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權利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役割定型(Stereo type)을 받아들이고 支持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엄연히 주어진 여성들의 權利를 무시하고 있다.

女性에 대한 偏見과 오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東西洋이 모두 生理的, 心理的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洋은 儒敎文化에서 陰陽思想을 통하여 남녀 兩性間의 氣質을 乾, 坤, 陰, 陽, 剛, 柔, 健, 順으로 象徵하고 있다.

西洋은 男性的의 氣質을 공격성, 능동성, 지성적, 지배성, 논리적, 이론적으로 보고, 女性的의 氣質을 수동성, 유약성, 비지성적, 감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兩性의 差는 각각의 性格的(Personality) 特性을 이루고 있으며, 태도와 활동에서 자연히 男性的(Masculine), 女性的(Feminine)이라는 性向特性을 나타내게 된다(O'neill, 1972).

케이트. 밀러(Kate Miller)는 그녀의 저서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男性的의 性向은 男性的의 役割을, 女性的의 性向은 女性的의 役割을 담당하게 되며, 남성은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색, 발명, 창조업에 적합하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기동적, 모험적, 전쟁, 정복, 정치적, 지배적행위에 적당하다. 따라서 무기와 도구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고 생활자료를 벌어들이는 外界生活에 적당하며 이로 인하여 실패와 파괴를 더 범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반하여 여성은 수동적, 유약성, 비지성적, 비능동적 性品을 가졌기 때문에, 비정치적이며, 피지배적이어서 남성의 명에 순종하고 남성의 인도에 종속하게 되며, 外界業보다 內界業이 적당하다. 또한 靜態의 特性으로 보호적인일에 적당하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식처를 마련하고 봉사적인 일에 적합하다는 것이다(윤후정, 1979), 이와같은 여성적 특성이 애정, 가사, 육아의 역할에 적합하고 남성은 정치, 경제등의 인간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남성적인일이 여성적인 일보다 우월하다는 優劣의 가치를 설정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남녀 兩性의 差와 氣質 및 役割의 差는 優劣의 기준을 떠나 서로 補充하면서 각자 自己完成(Self-actualization)을 이루어야 할것이다.

인류학자 마가렛 . 미드 (Margaret mead)는 뉴기니아 (New guinia)에 있는 아라페쉬 (Arapesh), 문두거머 (Mundugumor), 챔블리 (Tchembli) 등의 原始部族社會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라페쉬족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협조적이며, 우호적이고 비공격적이며 온순하며 여성적 특성 (Feminine)을 갖고있다. 문두거머부족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격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적개심, 투쟁적인 남성적 특성 (Masculine)을 갖고있다. 한편 챔블리부족은 西歐社會의 性役割과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 즉 여성은 지배적, 권력적이며 남성은 정서적으로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특성을 보인다 (Eshleman, 1978). 만일 生理學的으로 호르몬 (Hormone)의 균형이 남녀 兩性の 差를 나타낸다면 이와같은 部族들에서 남, 녀 差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류학자 스텔리 . 프리드 (Stanely Freed)는 미국의 인디안 部族중 호피 (Hopi)부족은 남자들이 직물을 짜낸다. 그러나 이웃 部族인 나바호 (Navahos)부족은 여자들이 직물을 짜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White, 1976).

남녀 性役割의 구분과 地位의 差는 그 社會의 구조, 제도 및 문화적 유산임을 알 수 있다. 과거 많은 학자들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현대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성들은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인류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人間 基本價値에 差를 두었고 수동성을 강조하여 여성주체성 (gender-Identity)을 不認하여왔다. 따라서 여성은 自我實現을 통한 人間 完成을 이룰 수 없도록 制限 받아온 것이다.

創造主가 人間을 創造하실때, 남·녀, 性別의 差를 두어 각자의 役割을 주었으나, 그것은 優劣의 差나 主從關係를 이루도록 한것이 아니라 서로 補充하며 서로를 完成하도록 하신것이다.

남녀 兩性の 기능과 역할결정은 性을 基盤으로 할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제 8 조)”. “법 앞의 평등(제 9 조)”를 선언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사회적 특권제급의 창설금지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제 13 조), 선거권, 피선거권의 인정(제 21 ~ 22 조),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와 의무(제 27 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및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제 28 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 30 조)등을 규정하므로써 헌법상으로는 완전히 남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신인령, 1979).

그러나 실생활문제에 있어 여성은 이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성자신도 異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귀절을

불때 “인간”이라는 말 속에 남자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성은 항상 스스로 例外的인취급, 不當한 취급을 받지않도록 社會意識을 提起하여야 한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부인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것은 여성들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부수취급하는 것이된다 (윤후정, 1979).

女性の 정치적 참여는 민주사회 시민의 진리이며 의무이다. 여성이 선거권을 책임있게 행사하려면 깊은 정치적 의식과 정확한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판단으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形式的이며 機械的인 참여, 또는 남성을 自動的으로 따르거나 그 영향에 좌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각 가정의 주부로서 消費者 입장에서 그들의 공동 생활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거시에는 이를 공동의사로 표시할때, 여성의 地位向上과 福祉增進에 관한 정책을 自發的으로 더욱 강력히 是正할 수 있으며 내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物價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不正 腐敗를 근절할 수 있는 正治風土를 造成하는데 기여할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국회, 입법, 사법, 행정부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성들 스스로 실력을 배양하며 전 여성들이 배후에서 이들을 위한 조직적 후원과 현실적인 공동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효재, 1971).

女性은 직업선택, 보수, 승진 또는 각종 手當面에서 남성과 완전한 同等權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주어진 노동의 권리는 法律上 남녀 平等의 地位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여성들 스스로 직업적 진출을 위한 실력배양을 하지않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평등을 찾기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직장은 결혼전 사회경험을 쌓는 임시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단출한 家口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한가롭게 빈 집을 지키는 것은 人的資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생활에서 오는 권태감으로 그들자신의 精神健康도 문제가 될것이다. 현대 여성의 生活週期(Life Cycle)를 보면 一生을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시기가 극히 단축되었으므로 기간을 제외하고는 建設的인 社會活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전체 女性들의 地位를 변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일이 될것이다.

勞動이라는 世界에서 女性의 未來는 지금 여성들이 추구하는 바와같이 전통적 노동에 대한 機會均等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는 自己能力과 社會的 價値에 대한 여성자신의 이미지(image)를 強化하는데 必須的인 요소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전통적인 노동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녀가 人間的 地位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女性은 男性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아내 또는 직업인이라는 것과는 아무상관없이 하나의 人間이요 하나의 社會的 人格體임을 自覺해야 한다 (Magda Cordell, 1975).

女性들의 社會的 役割중 잠재상태에 있으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주부들의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역할이다. 都市의 중류층 주부들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출

한 核家族形態의 생활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자신의 취미활동으로 보낸다. 이들은 社會參與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惰性에 젖은 생활을 되풀이 하게된다. 社會人으로서의 意識이 부족한 주부들은 물가파동이 생기면 물건을 매점매석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 社會的 物議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들의 관심과 남은 시간을 社會開發을 위하여 쓸수 있도록 女性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주부들이 함께 모여서 당면한 문제들, 예를들어, 소비자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족오락개발문제, 노부모문제, 식생활문제 또는 가정부문제등을 좀더 깊이 토론하고 合理的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학령전 아동들을 위한 早期教育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수요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주부들끼리 힘을 모아 유아학교(Nursery School)를 시작할수도 있다. 비슷한 나이의 또래의 학령전 아동들을 모아서, 이웃중에 주택공간이 넉넉한 집을 빌리거나, 아니면 공공 건물(예:공회당)을 빌려 하루에 몇시간씩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동들은 성인보다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집단(peer group)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아동들은 협동심을 기르게 되며 人性形成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주부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선생님, 부모, 영양사의 역할을 한다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유아교육 전문가나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해결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 하나가 「무질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일전 신문에 「무질서 박람회」라는 글을 읽어보아도 누구나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질서는 法律로 규제하거나 강제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국민 각자의 意識속에 질서에 대한 認識을 높임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어린시절부터 자녀교육-早期教育-을 통하여 질서감을 심어주고 社會 秩序에 대한 價値를 높이도록 해야한다. 國家 經濟開發이 선진국 못지않게 이루어져도 국민들이 社會秩序를 지키지 못할때, 우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음을 깊이 認識해야 한다.

주부들은 또한 자기마을에 공동어린이놀이터, 공동마을도서관등을 만들어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등 여성의 역할을 무한히 펼칠 수 있다. 女性의 本質은 사랑이다. 즉 生命力을 주는 것이다. 내 家庭에만 사랑을 줄것이 아니라, 고통속에 있는이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웃들에게, 社會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生命力을 불어넣는 일은 매우 高貴한 일이다.

나 혼자 편해지려고 社會秩序를 무시하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타인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태도,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가족은 이웃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해질 때 비로서 참다운 행복한 삶이 영위되고 安定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주부들의 地域社會 參與는 곧 그 社會의 福祉를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 福祉國家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대사회의 여성은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意志로 스스로의 意識을 改革하고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意識改革에 있어서 女性의 役割을 効率的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家庭的, 社會的 役割 측면에서 女性의 位置를 考察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女性은 家庭內에서 주어진 전통적이며 固定的 役割에서 벗어나 새로운 女性役割을 찾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資質을 길러야 한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또한 한 人間 女性으로서의 主體性(gender-Identity)을 되찾고 成熟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므로써 自我實現(self-actualization)을 이루어야 한다. 精神的으로 未熟한 사람은 결코 社會人으로서 成長할 수 없으며, 그 社會의 問題를 해결할 수 없다. 女性들이 보다 成熟한 人間이 되므로써 社會問題-不正的 意識의 改革-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둘째 : 社會에서 여성역할은 자신들이 家庭生活에서 남는 시간, 에너지(energy), 능력, 물자등을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女性 스스로 기회를 찾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自身の 成長은 물론이며, 많은 여성들의 社會參與 意識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직도 社會全體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女性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是正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未來社會는 모든 構造 및 制度의 變化와 함께 女性의 役割도 變化되어 갈 것이다. 未來女性이 自我(ego)는 전통적 여성에게 부여되어온 性役割로부터 탈피하여, 女性自身の 人間的 品位와 自尊心(Self-Esteem)을 유지하면서 성취욕구(Achievement-need)를 만족시키는 역할선택으로 잠재능력을 무한히 개발해야 한다. 또한 家庭, 學校, 社會는 인간의 社會化過程(Socialization)에서 남녀의 性役割에 불필요한 差別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兩性이 모두 完全한 人間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意識改革에 있어서 女性이 役割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 女性들이 社會參與를 위하여 항상 배울 수 있는 장소 즉 平生教育기관 시설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 전국 곳곳에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주부들의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고 그들의 시간을 生産的인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女性들 자신이 갖고 있는 不正的意識이 變化되어야만 家庭에서는 자녀들을 健全한 人間으로 키울 수 있으며 그들이 자라서 健全한 社會인이 될 수 있다. 意識改革은 결코 短期間에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므로 國家는 이를 위한 長期的 計畫을 세워 實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 家庭에서 부터 남녀의 固定的 性役割 구분에서 벗어나 역할의 유동성(role-flexibility)이 이루어지도록 家庭生活의 合理化를 위하여 夫婦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子女들은 家庭에서 그들의 性役割 모델(Model)을 보면서 역할의 유동성을 배우게 되고 점차적으로 사회전체에 이를 퍼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서 남녀 역할구분에 대한 優劣의 편견이 없어지고 진정한 人間平等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 職業을 갖는 여성들의 二重的 役割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탁아소, 유아원 등의 早期 教育施設을 더욱 확장시키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간동안 시간제 근무제도를 마련하는 社會 制度的 뒷받침이 필요하다. 家庭에서 生活하는 女性들 보다 社會活動을 하는 女性들이 좀더 예민한 감각으로 社會問題를 파악하고 問題解決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國家는 女性들에게 社會參與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넷째 : 家族法改正등 社會制度, 構造上 남아있는 남녀 不平等을 시정하므로써 女性들이 자부심을 갖고 活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 女性들이 職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여도 함께 일하는 男性들의 편견과 그릇된 認識으로 승진 및 대우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社會 모든 制度가 女性들의 職場進出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어야 하며 職場內 차별에 대한 認識을 變化 시키기 위하여서는 法的規制만으로는 부족하므로 男性들을 위한 意識改革教育도 必要하다.

社會 構成員으로서 女性들과 함께 男性들의 思考도 變化되어야 비로써 社會全體를 위한 意識改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밝은 未來를 건설할 수 있다.

(3대 부정심리 추방을 위한 여성단체 세미나, 연구발표. 1982.11.22)

參 考 文 獻

1. 김영자. “主婦의 職業有無에 따른 家庭內 役割遂行에 관한 比較研究” 대한 가정학회지. 제 19 권 3 호. 1981. pp.69 ~ 81.
2. 김주숙. “한국의 농촌여성” 女性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p.333~352.
3. 金榮情. “정의사회 구현과 여성의 역할”.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제 9 호. 1981. pp.60 ~ 61.
4. 金永植. “청소년의 생활질서”.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제 9 호. 1981. pp.12 ~ 13.
5. 金泰吉. “가정교육과 질서의식.”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제 9 호. 1981. pp.14 ~ 15.
6. 김양순. “構造의 一機能의 面을 中心으로 본 韓國家族의 理論의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Vol. 17. No. 3 (September, 1979), pp.61 ~ 69.
7. 김양순. “濟州道の 家族生活實態 一部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Vol.5. No.1. (March, 1979), pp.55 ~ 69.
8. 김양순. “사회개발과 적십자 봉사원.” 봉사의 메아리. 대한적십자사. 제 7 호, 1979, pp.4 ~ 5.
9. 박정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제 13 권 1 호. 1975. pp.41 ~ 53.
10. 백경남. 韓國 女性政治論. 서울:文音社, 1981.
11. 보봐르. 시몬느. 제 2의 성. 조흥식(역). 서울:을유문화사. 1973.
12. 신인령. “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女性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p.284 ~ 307.
13. 李圭泰. “최고의식.”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제 9 호. 1981. pp.88 ~ 89.
14. 이낙스. 램. 현대인의 정신건강. 제석봉(역). 서울:성바오로 출판사. 1981.
15. 이동원. “한국의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女性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p.370 ~ 389.
16. 이효재. “社會變化와 女性의 役割.” 서울:韓國女性問題研究所. 1971, pp.169 ~ 181.
17. 이효재. “여성과 사회구조.” 女性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p.64 ~ 87.
18. 유영주. “家庭은 解體될 수 있는가? 家庭의 現代의 機能.” 서울:기독교사상. 1974. pp.1 ~ 14.
19. 윤복자. 유영희. “購買決定過程에서의 夫婦의 役割構造.” 대한가정학회지. 제 19 권 4 호. 1981. pp.73 ~ 84.

20. 윤후정. “여성문제의 본질과 방향.” 女性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p.36 ~ 63.
21. 兪道鎭. “무질서 의식”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1982, pp.40 ~ 41.
22. 朱貞一. 子女教育에세이. 教育新書 82. 서울:배영사. 1980.
23. 鄭樹鳳. “자립의식”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1982. pp.80 ~ 81.
24. 정세화. “한국여성의 사회화.” 女性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p.353 ~ 369.
25. 崔存錫. “韓國都市家族의 役割構造.” -서울시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아세아연구, pp.15 ~ 39.
26. 崔存錫. “韓國農村家族의 役割構造.” 서울:단국학보. 제 32호. 1969. pp.241 ~ 276.
27. 黃永玉. “사치의식” 정화. 사회정화위원회. 1982. pp.34 ~ 35.
28. 대한성서공회발행. 공동번역 성서. (카톨릭용). 서울:대한성서공회 발행. 1977. pp.1 ~ 5.
29. Axinn, June. & Herman Levin. “The Family Life Cycle and Economic Security.”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24. No.6. (November, 1979), pp.540-546.
30. Blanken Ship, Judy. *Scens from Life. views of family, marriage, and intimacy*, Boston Tronto: Little Brown and Com., 1976.
31. Chodorow, Nancy.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정자환(역). 女性社會哲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p.149 ~ 158.
32. Codell, Magda, John Meltale & Guy Streatfield. “Woman and World Change”. 朴定樹(역). 미래를 묻는다. 서울:한국미래학회. 1975. pp.165 ~ 190.
33. Eshleman, J. Ross. *The family: An Zntroductzon*. Boston: Allyn and Bacon, Znc., 1975.
34. Lindbergh, Anne M. *Gift from the sea, an answer to the conflicts in our lives*. U.S.A.: Pantheon Books. 1955.
35. Marmor, Judd. “Changing patterns of Femininity: Psychoanalytic Implications”. 이근후(역). 女性社會哲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p.118 ~ 129.
36. Massad, Christopher M. “Sex Role Ident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81. pp.1290 ~ 1298.
37. Millet, Kate. *Sexual Politics*. N.Y.: Doubleday & Co., 1970.
38. Mitchell, Juliet. “Women’s Estate.” 장필화(역). 女性社會哲學. 서울:이화여자대

- 학교 출판부. 1981. pp.46 ~ 53.
39. Moustakas, Clark. *Loneliness*. N.Y. : Prentice-Hall, Inc., 1961.
40. O'neill, Nena & George O'neill. *Open Marriage, a new Life style for couples*. N.Y. : M.Evans & Com., Inc., 1972.
41. Popp, Gary E. & William F. Muhs. "Fear of Success and Wonen Employees". *Haman Relations*, Vol.35. No.7. 1982. pp.511 ~ 519.
42. Rogers, Carl R.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 1961.
43. Toffler, Alvin. *Future Shock*. N.Y. : Bantom Books. Inc., 1971.
44. Skolinick, Arlene. "Exploring Marriage and the Family". 이옥경 (역). *女性社會哲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p.202 ~ 218.
45. White, Sheldon. *Human Development in Todays' World*. U.S.A. : Little Brown and Com., 1976.
46. Wollstonecraft, Mary.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장필화 (역), *女性社會哲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p.9 ~ 11.

— Summary —

— The Role of Women in Improving Society —

Kim Yang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f the role of women in improving society.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false ideas, and practices e.g. Authoritativeness, Injustic and Corruption and disrespect for law and order, also we have an inferiority complex, etc, etc, all of which influence our attitude to life. If we are to make our society a better place to live in, we must do away with these false ideas and practice.

The rejection of these false ideas and practices will not be an easy task. It does not come about automatically by introducing a law, it only comes about when people become aware that these ideas and practices are wrong and injurious to society as a whole, and when people desire to change these false ideas and practices. People must first wish to change, and then work to bring change about.

In order to define women's role in helping to bring about a change in society, we must first consider for a moment womens traditional role in society. Until now Korean Women have grown up in a patriarchal lineal family system. She was regard as a part of the family,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This fact influenced a womans idea about herself and her work. Women came to regard themselves as homemaker only, all for the family, with little or no concern for society. Society also accepted this idea about women, and for the most part excluded them from playing any great part in society outside the home.

However, if modern society is to change more humane and livable, it must have the contribution that women can give as well as that of man.

Therefore women must not be condemned to the task of homemaker only, but as mothers of families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carried on outside the home. She should be encouraged to have concern about social problems, both local and general, and to work with others for the overcoming of social problems, and for the good of society. Help and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those women who wish to make a career working in society.

To help women work for the improvement of society, I propose the following:

First,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at is based on sex-bias should be done away with. A women should not be excluded from a position, or job, just because she is a woman.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eans of education by which women, i.e. mothers of families,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ability by work for a better society.

Third, modern society is changing at a very fast rate and these changes are effecting people in all aspects of life, especially in the family. For various reasons any women, have jobs outside home, so as part time, some as full time, and some as a career.

Help must be given to these women who and mothers of families are yet and working outside the home. Day-care-center and Nursery school should be set up for young children who have no one to look after them while the mother is out at work. And these working mothers should receive help and consideration during their periods of pregnancy and child birth.

Fourth, to help do away with bias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Family Law should take effect to do away with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fathers of the families should not just perform the traditional role of bread winner but in the home help the wife with work that has until now been relegated by tradition as women's work. This would help future generations to have less bias toward women.

It would help men and women to have a greater mutual respect, and to cooperate better for a better society.